

팩트체크 + 보고서		 <small>The Media Network for Justice</small>
특별판	발행일: 2020년 2월 24일(월)	
연락처	(02) 741-7662 (유은실)	www.medianetwork.kr FAX (02) 741-7663
에디터	황우섭 (E-mail : mirifica@naver.com)	

2020 총선 방송보도 분석②

- 분석대상 :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 / 분석기간 : 2.16~2.22 -

요 약 문

2월 16일(일)부터 2월 22일(토)까지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이낙연 vs 황교안, 미래통합당 출범, 정당 공천 관련 기사 총 102건을 분석한 결과 정당 공천 관련 기사가 7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vs 황교안 관련 기사의 경우 선거가 본격화하지 않은 시점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립보다 단순 행보와 가십 기사 위주로 기사가 구성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프레임에서도 갈등이나 논쟁 관련 프레임보다 무프레임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낙연 후보 관련 방어 프레임도 종로구가 아닌 민주당 공천, 칼럼 고발에 대한 사과와 같은 정당 차원의 프레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출범 관련 기사의 경우 미래통합당 출범에 대한 단순 사실 전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되는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인적 구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상대 정당 또는 정권을 공격하는 내용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미래통합당의 경우 새로운 정당 출범의 명분인 정권심판이 주요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의 주장이나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다. 갈등과 대립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도로 한국당’ 프레임과 ‘정권 심판’ 프레임이 대립의 축을 구성하고 있었다.

메시지 형식의 경우 미래통합당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천이나 인력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부정적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통령 화환 훼손도 과거 사례와 연결되며 부정적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슷한 기사 건수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김남국 변호사 공천 신청 관련 이슈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을 단독으로 다루는 기사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가 약간 더 많은 결과의 배경으로 작

요 약 문

용했다.

보도 프레임의 경우 무프레임 기사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변호사의 더불어민주당 비판으로 인해 피격 프레임이 12건으로 미래통합당의 2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다만 방어 및 공격 프레임의 경우 비슷한 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TK와 PK 지역의 인적 채신이 주요 기사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연주 의원이나 김태호, 홍준표 전 의원의 공천관련 이슈들이 주요 피격, 방어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다.

반면 공격, 방어, 피격 등 프레임이 두드러지는 기사가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메시지 형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의 질적 측면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희석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 내 이데올로기 vs 의원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갈등의 차이는 미래한국당의 공천 관련 갈등을 사사화(privatization)¹⁾할 개연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공적 영역의 문제를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을 뜻함.

1. 개요

본 총선 방송보도 분석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총선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총선 관련 방송보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분석대상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의 총선 관련 기사이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가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기사가 홈페이지, 포털 등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포털(네이버)에 각 방송사 메인뉴스와 함께 게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월 16일(일)부터 2월 22일(토)까지 일주일 동안 각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 관련 기사, 미래통합당 출범 관련 기사, 정당의 공천 관련 기사를 선정하였으며 총 10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방송사 별 기사 건수

방송사		건 수	비중
지상파	KBS	10	9.8
	MBC	14	13.7
	SBS	11	10.8
보도전문	연합뉴스TV	7	6.9
	YTN	7	6.9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16	15.7
	JTBC	12	11.8
	채널A	10	9.8
	MBN	15	14.7
합계		102	100.0

주요 이슈별로는 이낙연 vs 황교안 관련 기사 10건, 미래통합당 출범 관련 기사 21건, 정당공천 관련 기사 71건으로 정당공천 기사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표 2] 주요 이슈별 기사 건수

	N	비중
이낙연 vs 황교안	10	9.8
미래통합당	21	20.6
정당공천	71	69.6
Total	102	100.0

2. 이낙연 vs 황교안

1) 기사 내 언급 수

종로 선거구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에 대한 **전체 10개 기사**에서 등장 수의 경우 이낙연 후보가 3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후보의 기사 내 등장 횟수가 더 많은 것은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최근 칼럼 고발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는 내용 등 종로구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황교안 후보가 등장하는 종로구 선거구 외 기사는 SNS 홍보 전략에 대한 가십성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표 3] 후보 별 기사 내 언급 수

	N	Percent	합계
이낙연	10	58.8%	100.0%
황교안	7	41.2%	70.0%
합계	17	100.0%	170.0%

2) 기사 길이 및 보도 순서

기사 길이의 경우 이낙연 후보가 등장한 기사보다 황교안 후보가 등장한 기사의 평균 길이가 약 9초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기사에서 두 후보 모두 등장한 경우 두 후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황교안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긴 것은 이낙연 후보관련 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칼럼 고발에 대한 사과’와 같은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4] 후보별 평균 기사 길이

	N	기사 길이(초)
이낙연	10	128.3
황교안	7	137.6
합계	17	133.0

보도 순서의 경우 이낙연 후보가 언급된 기사가 더 앞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 관련 기사의 경우 여당에서 야당 순으로 배치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후보별 보도 기사 평균 보도 순서

	N	보도 순서
이낙연	10	17.8
황교안	7	18.1
합계	17	18.0

3) 메시지 대상과 보도 프레임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보도 프레임을 살펴보면 공천, 정당 통합 등 이슈로 인해 아직까지는 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나 갈등 관련 프레임이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는 방어 프레임이 2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칼럼 고발’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사과와 해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련 기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겸손’에 대한 강조가 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도 프레임의 경우 모두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황교안 후보 관련 기사의 경우 주로 후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낙연 후보 관련 기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관련되어 등장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후보별 보도 프레임

	방어	무프레임	합계
이낙연	2	15	17
	11.8%	88.2%	100.0%
황교안	0	14	14
	0.0%	100.0%	100.0%
합계	2	29	31

4) 기사 소재

기사 소재의 경우 지지율 등과 관련된 판세가 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당, 후보 이미지가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후보 이미지의 경우 이낙연 후보는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발언 2건이 있었으며, 황교안 후보의 경우 SNS 홍보전략 관련 기사 1건이 차지하고 있었다.

[표 7] 후보별 기사 소재

	빈도	비중(%)
판세	6	60.0
정당	1	10.0
후보 이미지	3	30.0
합계	10	100.0

3. 미래통합당 출범

1) 기사 내 정당 언급 수

미래통합당 출범 관련 **전체 21개 기사**에서 기사 내 정당 언급 수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언급 수가 21건으로 80.8%, 더불어민주당이 5건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주된 내용이 미래통합당 출범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서 미래통합당의 언급 횟수가 많은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미래통합당의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가 인용되는 경우였다.

[표 8] 정당별 기사 내 언급 수

	빈도	비중(%)
더불어민주당	5	19.2%
미래통합당	21	80.8%
합계	26	100.0%

2) 기사 길이 및 보도 순서

기사 길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되는 기사의 기사 길이가 미래통합당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약 39초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되는 경우 채널A의 '여량야랑', MBC의 '정참시'와 같은 상대적으로 긴 가십성 기사가 2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통합당이 단독으로 언급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리포트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2분 남짓한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미래통합당 출범 관련 대부분의 기사들은 관련 사실들을 단순 전달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정당별 평균 기사 길이

	N	기사 길이(초)
더불어민주당	5	178.4
미래통합당	21	137.0
합계	26	157.7

보도 순서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언급되는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급 가십성 출연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뒤쪽에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보도 순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정당별 평균 보도 순서

	N	보도순서
더불어민주당	5	17.0
미래통합당	21	13.5
합계	26	15.3

3) 메시지 대상과 보도 프레임

메시지 대상에 따른 보도 프레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미래통합당은 무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프레임의 경우 미래통합당 출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주장하는 ‘공격’ 프레임이 주 내용을 차지했으며 주장과 피격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 관련 프레임의 경우 주요 주장은 ‘보수 통합의 가치’, 공격은 ‘정권 심판’, 피격은 ‘도로 한국당’ 프레임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도로 한국당’ 프레임 vs 미래통합당의 ‘정권심판’ 프레임이 주요한 이항대립 요소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프레임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다. 반면 두 정당의 서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를 ‘방어’하는 프레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리적 토론의 성격보다 갈등과 대립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1] 정당별 보도 프레임

	주장	공격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3	7	4	3	17
	17.6%	41.2%	23.5%	17.6%	100.0%
미래통합당	4	7	4	15	30
	13.3%	23.3%	13.3%	50.0%	100.0%
합계	7	14	8	18	47

※ 기타 정당 제외

메시지 대상에 대한 메시지 형식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의 부정적 형식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통합당 관련 부정적 메시지 형식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공천, 통합방식, 유승민 의원 출범식 불참 등 당 내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가 다루는 소재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관련 메시지가 많을 수밖에 없으나, 헤드라인에서도 ‘왜 우리만 인사해?’…미래통합당, 통합·혁신 어디로?, ‘3년 만에 보수통합 '미래통합당' 출범...돌고 돌아 새누리당’, ‘유승민 항의-TK 현역 저항…미래통합당 공천 파열음’ 등 부정적인 메시지 형식을 지닌 메시지 형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기사 건수가 1개에 불과했으나 대통령 화환 훼손도 과거 사례

와 연결되며 부정적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메시지의 경우 ‘보수통합’, ‘TK와 PK 물갈이’ 등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표 12] 정당별 메시지 형식

	긍정	중립	부정	합계
더불어민주당	0	15	2	17
	0.0%	88.2%	11.8%	100.0%
미래통합당	3	21	6	30
	10.0%	70.0%	20.0%	100.0%
합계	3	36	8	50

※ 기타 정당 제외

4) 기사 소재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 소재의 경우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정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사 소재 자체가 미래통합당 출범과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정당의 일정이나 출범 소식 자체에 집중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 공천 관련

1) 기사 내 정당 언급 수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가장 많은 71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사 속에서 정당이 언급되는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44건, 미래통합당이 40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개별적인 기사에서 다루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김남국 변호사의 공천 신청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련 기사 수가 미래통합당보다 소폭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정당별 기사 내 언급 수

	N	비중
더불어민주당	44	52.4%
미래통합당	40	47.6%
합계	84	100.0%

2) 기사 길이 및 보도 순서

기사 길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언급된 기사가 약 9초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길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미래통합당이 언급된 공천관련 기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련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정당별 평균 기사 길이

	N	기사 길이(초)
더불어민주당	44	125.8
미래통합당	40	139.2
합계	84	132.5

기사 보도 순서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언급된 기사들이 뒤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별개의 기사에서 다루는 경우 여당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 정당을 함께 다루는 기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도순서의 경우 1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5] 정당별 평균 보도 순서

	N	보도순서
더불어민주당	44	16.3
미래통합당	40	17.0
합계	84	16.7

3) 메시지 대상과 보도 프레임

메시지 대상에 따른 보도 프레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무프레임이 가장 많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피격 프레임이 12건, 2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3건, 5.0%로 나타나 공천 관련 프레임의 경우 논란이나 갈등 관련 이슈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프레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피격이나 방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김남국 변호사와 관련된 갈등이 주요 기사 소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변호사가 주로 공격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비판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방어와 피격의 주요 프레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TK, PK 지역의 물갈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연주 의원의 부산 공천 관련 논란, 홍준표 의원 공천 관련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공천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며 상대적으로 갈등 자체가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표 16] 정당별 보도 프레임

	방어	공격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3	2	12	43	60
	5.0%	3.3%	20.0%	71.7%	100.0%
미래통합당	2	2	2	48	54
	3.7%	3.7%	3.7%	88.9%	100.0%
합계	5	4	14	91	116

※ 기타 정당 제외

반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언급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었으나, 메시지 형식의 경우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변호사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 소위 ‘조국 내전’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며, 부정적인 메시지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메시지 형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TK와 PK 지역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와 관련해 부산 지역 이연주 의원, 당 공천위와 갈등 중인 홍준표, 김태호 의원 관련 내용들이 부정적 메시지 형태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 관련 내용들의 전체적인 경향이 ‘인적 쇄신 비중이 큰 미래통합당과 이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흐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물갈이로 인한 갈등보다 ‘조국 프레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의 경우 의원들의 공천 지역 자체가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메시지 형태에서 이러한 부분의 희석되고 양 당 모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동일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갈등의 내용과 형태’ 역시 희석될 수 있다.

‘당 내 이데올로기 갈등 VS 의원 개인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한 갈등’으로 두 정당의 갈등 형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의 경우 ‘의원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이러한 갈등이 ‘명분 없는 싸움’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표 17] 정당별 메시지 형태

	긍정	중립	부정	합계
더불어민주당	3	42	15	60
	5.0%	70.0%	25.0%	100.0%
미래통합당	6	34	14	54
	11.1%	63.0%	25.9%	100.0%
합계	9	76	29	116

※ 기타 정당 제외

4) 기사 소재

공천 관련 기사 소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정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 소재의 경우 후보의 도덕성과 이미지 관련 소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당 후보 도덕성의 경우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의 과거 돈봉투 수취로 인한 벌금형 전력으로 인한 영입 취소 관련 기사 2건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후보 이미지의 경우 태구민이라는 가명으로 출마하는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이연주 의원의 부산 출마와 관련한 기사 3건이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 소재의 경우 광진을 지역구에 전략공천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판세분석 기사 1건이 있었으며, 후보 이미지의 경우 김남국 변호사의 행보를 다룬 기사 1건이 차지하고 있었다.

[표 18] 정당별 기사 소재

	판세	정당	후보 도덕성	후보 이미지	기타	합계
더불어민주당	1	42	0	1	0	44
	2.3%	95.5%	0.0%	2.3%	0.0%	100.0%
미래통합당	0	34	2	3	1	40
	0.0%	85.0%	5.0%	7.5%	2.5%	100.0%
합계	1	76	2	4	1	84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에디터 책임 하에 분석된 내용으로 미디어연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 (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